

주후 2022년
5월3일

아프리카 난민선교
Call to African Refugees

다섯번째 서신

이곳 우간다에는 한국의 겨울에 해당하는 건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어 매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 지인들로부터 생명이 약동하는 고국의 싱그러운 봄 소식을 들으며 잠시나마 추억 속으로 여행합니다. 지난 2년이 넘게 '코로나' 라는 터널을 지나면서 누구나 예외없이 힘든 때를 지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안식은 주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5년을 넘는 시간 동안 북부 인도라는 새로운 문화 속에 살면서 만들어진 타문화 적응을 위한 근육이 있기에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통하지 않음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함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단거리 이동을 위해 스쿠터를 구입하여 타고 가던 중 한 낮에 대로 변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후 아내는 집 밖을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야 별 것 아니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우간다 정부의 난민 개방 정책으로 인해 여전히 인근 국가로부터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차량이 없어 우간다 전국에 흩어진 난민 정착촌을 돌아 보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원함을 아신 주님의 인도로 3월 말에 나키발레 난민 정착촌 (Nakivale Refugee Settlement)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국적 난민들로 구성된 교회의 현지 사역자의 인도로 만난 몇몇 가정들은 비가 내리면 나뭇가지와 비닐로 얼기 설기 엮어서 덮은 지붕에서 비가 새지만, 유난히 뼈에 살 가죽만 붙은 듯한 노부부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한 가정에 한 마리 염소 분양하기 프로젝트'를 'KPM아난민뉴스'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1차로 선정한 50가정에게 염소가 한 마리씩 보내어 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첫 새끼를 낳으면 교회로 드려, 교회 전도활동비와 운영비로 쓰여지도록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랑 나눔에 참여해 주신 한분 한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난민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평가를 통해 1차 분양이 좋은 결과를 거두면 2차 염소 분양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도착한 후 난민 사역을 위한 리서치를 계속했습니다. 그 동안 설문 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의 요청으로 캄팔라에 살고 있는 도시 난민들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의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어려움은 안전에 대한 위협, 배고픔, 아플 때 치료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데리고 생존을 위해 도망을 온 남수단 여인들이 대부분 입니다. 전쟁 중에 겪은 상처(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평가시간을 통해 몇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준비한 차와 간식을 나누고 소액의 교통비를 그들의 손에 쥐어 주면서 정작 저희들이 더욱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기나긴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며 무수한 탄압을 이겨내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현실을 마주하며 배고픔과 역경을 딛고, 뼈가 닳도록 수고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현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 보조금은 1인당 한국돈으로 월 6천 5백원정도입니다. 난민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수도 없이 해보지만 죽음을 무릅써야 하기에 전쟁과 내전의 휴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어 불가능합니다. 난민 발생국들의 안정을 이루고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간다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이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이번에 가진 난민 모임에 4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 이들을 방문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차량을 허락하시면 난민 정착촌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필요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빵 만으로 살것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당장 빵이 절실한 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저희 부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줄이면 난민을 조금이라도 더 도울 수 있을까? 아님, 하루에 한 끼를 줄일까?” 난민들의 필요가 커짐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작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르며 순종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딸 다솔은 남편과 함께 고신 총회 선교부(KPM)에서 선교사 허입을 위한 12주 과정의 훈련(OTC)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원교회들을 순적히 만나 파송에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고, **계속 학업중인 아들 다니엘이 자기 일에 능한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더욱 행복한 오월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후 2022년 5월 3일

김두평, 백에스더,다솔,다니엘 드림
전화: +256 761 260515 / 이메일: calltoar2021@gmail.com

현장 사진과 더 자세한 내용은 난민뉴스방으로